

렘펠 주도 글로벌 차량 흥행 성공... 9년만에 흑자전환

(한국지엠 사장)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트랙스 크로스오버)

한국지엠, 로베르토 렘펠 리더십
전년비 영업손익·당기순손익 흑자
로베르토 렘펠 사장
“지속 가능 성장 달성할 준비 됐다”

다음달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렘펠 사장은 수년간 적자에 내수·수출 등 생산 감소로 인한 위기를 맞은 한국지엠의 체질개선을 통한 흑자전환을 이끌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흥행과 GMC 브랜드의 성공적 론칭 등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의 전체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렘펠 사장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발을 주도한 모델이기도 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출시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영업일 기준, 사전계약 7일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1만3000대를 기록했다. 실제 한국지엠은 지난 1~4월 트랙스 크로스오버



렘펠 사장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성공을 기원하며 쉐보레 대리점 대표 및 카메라저의 티셔츠에 사인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

출시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64.8% (11만대5389대) 증가, 전체 판매량은 54.9% (12만4456대)로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흥행을 뒤에는 렘펠 사장의 역할이 컸다. 렘펠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GM의 여러 글로벌 사업장에서 제품 기획 및 차량 개발을 담당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근무했으며, 2019년에는 GM의 연구개발 법인인 GMTCK 사장으로 선임됐다. GMTCK는 GM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연구개발 센터다. 렘펠 사장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연구개발 했다.

두 모델 모두 GM의 핵심 글로벌 차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국지엠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그가 GMTCK 사장이자 수석 엔지니어로 주도해 개발한 마지막 차량으로, 기자간담회 등 공식석상에서 ‘베이비(Baby)’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지엠은 이를 바탕으로 렘펠 사장이 취임 한 지난해 매출 9조 102억원, 영업이익 2766억원, 당기순이익 210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서 모두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한국지엠이 흑자를 기록한 건 2013

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우호적인 환율, 수출 증가, 가격 강세, 반도체 가용성 확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지엠은 올 한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또 렘펠 사장은 한국지엠의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창원공장 9000억원, 부평공장 2000억원 등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 이와 함께 창원공장을 연간 최대 28만 대 규모의 생산 역량을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CUV) 생산공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더불어 렘펠 사장은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지엠은 GMC 브랜드 론칭과 함께 시에라를 국내 니치마켓에 안착시키고, 국내 생산되는 글로벌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등 국내생산 모델과 수입모델을 구분하지 않고 글로벌 GM의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시장에서도 글로벌 모델을 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 GM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며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향후 한국지엠은 내수시장에서는 질적성장, 수출 시장에서는 양적성장을 꾀하며 안팎으로 내실 갖추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의 주력 부문인 수출 시장에서는 많은 실적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한국지엠의 새로운 글로벌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본격적인 생산 및 출시에 돌입했으며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 4월 미국 소형 SUV 부문 소매 판매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꾸준히 인기몰이 중이다.

렘펠 사장은 연초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GM은 매우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했으며, 올해 흑자 전환과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렘펠 사장은 올해 ▲글로벌 신제품 생산 극대화 ▲쉐보레·캐딜락·GMC를 통한 멀티 브랜드 전략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장 ▲프리미엄 고객 경험 확대 등을 핵심 사업 전략으로 꼽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글로벌 공략

한다. LG전자는 LG 매그니트를 전세계 시장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G 매그니트는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 최적화했다.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벽을 만들어 배경을 구현해 촬영하면 별도 특수 효과 없이 현장감을 담을 수 있다.

LG전자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가 전세계 스튜디오를 공략한다. LG전자는 LG 매그니트를 전세계 시장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G 매그니트는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 최적화했다.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벽을 만들어 배경을 구현해 촬영하면 별도 특수 효과 없이 현장감을 담을 수 있다.

HD현대, ‘친환경 해상공급망 구축’ 나선다

포스코·해운4사와 업무협약
인공지능 기반 ‘오션와이즈’ 활용

HD현대가 국내 대표 철강 및 해운 기업들과 손잡고, ‘오션와이즈(Ocean Wise)’를 통한 친환경 글로벌 해상 공급망 연결에 나선다.

HD현대는 국적 선사 4곳(에이치라인해운·대한해운·팬오션·폴라리스윅핑), 포스코와 함께 ‘조선·철강·해운 3자 간 탄소중립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박 건조-선박 운영-원료 운송’으로 연결된 해상 물류 밸류체인 당사자들이 직접 탄소중립을 위한 ESG 협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력의 주요 내용인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비롯한 운항선박의 실증은 HD현대의 오션와이즈를 통해 이뤄진다.

오션와이즈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선박 운항 최적화 및 탄소배출 모

니터링 솔루션으로, HD현대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밝힌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비전 중 하나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는 화주인 포스코의 선단 관리 시스템(PosSIM)에 오션와이즈를 탑재하고, 해운 4사는 오션와이즈가 적용된 선박들의 운항 효율과 연료 소모량, 탄소배출량 등 실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공유할 예정이다.

HD현대는 이번 실선 검증을 통해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션와이즈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포스코, 해운 4사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담은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비전을 발표하고 실천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AI기술 도입해 中企·지역 동반성장

‘스마트공장 3.0’ 사업 시작
소멸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매년 100억씩, 3년간 300억 투자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공장을 인공지능(AI)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현장을 AI와 데이터 기술을 더한 지능형 공장으로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 참가사와 새로운 기업도 발굴한다.

우선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기초적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을 고도화한다. AI 기술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지능형 공장’ 수준으로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

지역 균형 발전도 사업 주요 목표로 삼았다. 지역 사회 자생력도 키운다. 인구소멸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지역에 다시 활기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부산에 동아 플레이팅을 방문한 모습.

불어넣겠다는 포부다. 지방자치단체와 수혜 기업이 함께 하는 ‘자생적 지역 스마트공장 생태계’ 확산도 지원키로 했다. ESG 경쟁력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별도 구성한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탄소 배출 감축 등 중소기업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를 돕기 위함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매년 100억원씩, 3년간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6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게 목표다.

종전과 같이 중기업계도 함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 출연 금액 만큼 매칭 지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모집과 심사 및 선정, 사후 평가를 맡았다.

자생적 지역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위

해 지자체와 수혜기업까지 힘을 보탠다.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전북형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일찌감치 자체 생태계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전북 중소기업 대표들도 지난 3월 ‘민간 멘토단’을 출범하고 지역 스마트공장 사업을 돕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이미 성과가 입증됐다”며 “전북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의 상생형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제조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의 선두에 합류하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티웨이, 7월 14일부터 홍콩노선 ‘재운항’

티웨이항공이 여름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닫혔던 하늘길을 넓힌다.

티웨이항공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멈췄던 인천~홍콩 정기노선을 7월 14일부터 국내 LCC 중에서는 처음

으로 재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년말 첫 취항한 인천~홍콩노선은 평균 75%의 탑승률을 보이며 고객들이 많이 찾았던 노선으로 이번 티웨이항공의 재운항을 통해 합리적인 운

임과 다양한 스케줄 이용을 통한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 도시인 홍콩은 젊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번 티웨이항공의 재운항을 통해 많은 고객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허정운 기자 zelkova@